

해남 민생경제지원금 지역경제 활력

2월 전 군민 20만원 상품권 지급
군민 91% “소비 증가 체감했다”
소상공인 91% “매출·고객 늘어”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군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2765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가 “소비 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또 “가계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87%에 이르는 등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이 소비 촉진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책 효용성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지원금의 주된 사용처로는 외식비, 주유비, 식료품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설문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91%가 “매출이 증가했다”, 59%가 “고객 수



해남군은 지난 2월 군민에게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남군 제공>

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는 “고객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했다”고 답해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졌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8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전체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인원은 국외체류자 등을 제외한 총 6만 2323명이며, 지급액은 124억6400만원이다. 특히 지원금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기반을 회복하고 군민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 진도군 2년 연속 ‘우수’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올해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가점점) 37개 지표를 평가했다.

진도군은 기관장의 재난상황 대응역량 평가, 재난안전예산 운영 적절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가축질병 재난 및 감염병 재난 저감활동 실적,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실적, 현장 수습 관리 역량,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도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예정 부지. <목포시 제공>

목포에 ‘전남권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

해수부 공모 선정...2027년 준공

목포시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남권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권 FPC’는 마른김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물량을 규모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한 후 전처리·가공·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기반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목포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시설 운영은 목포수협이

맡는다.

목포시는 FPC 건립을 통해 물김의 공급 과잉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고, 고품질 마른김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마른김 가공·저장 시설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FPC가 김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서 19~20일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미국·프랑스 등 11개국 170여명
슬로시티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완도군이 오는 19~22일 ‘슬로시티와 해양 치유’를 주제로 ‘2025 국제 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를 개최한다.

국제 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면서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는 도시 간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 정책 공유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 174명의 슬로시티 대표가 참석한다.

완도 해양 치유센터와 해변공원, 청산면 등에서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회원 도시 정책 발표 ▲해양 치유와 숲 치유 체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 투어 등이 진행된다.

군은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 슬로시티 도시 간 협력은 물론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외 참가자 유입에 따른 관광, 숙박 등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군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받게 될 전망이다.

슬로시티 특산품 판매관 운영, 해양 치유·국제 해조류박람회 홍보, 버스킹 공연, 장보고 옷장 등도 펼쳐진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해양 치유를 비롯한 차별화된 정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완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 관계자들이 영광군 계마항에서 참조기·부세 종자 방류 행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참조기·부세 40만 마리 방류

굴비 원료 자체 부화시킨 종자
영광 등 굴비산업 재도약 기대

전남도가 서해에 참조기·부세 종자를 방류하는 등 굴비 산업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원장 김충남)은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부족한 굴비 원료의 어획량 증대를 위해 자체 부화시킨 참조기·부세 종자 40만 마리를 지난 11일 영광군 계마항과 안마도 해상에 육·해상으로 합동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참조기와 부세 종자는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자체 양성 중인 참조기와 부세의 우랑 천어(어미고기)로부터 ‘광(光)주기, 성(性)성숙 유도,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생산한 수정란을 약 90일간 사육·관리하여 평균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성장시킨 인공종자이다.

방류행사는 전남도가 참조기와 부세 종자를 생산하고, 영광군에서는 종자생산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영광군수협과 근해유망수협에서는 어업인들과 함께 방류행사 준비했다.

특히, 수산물의 대표 격인 굴비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근해유지망 선주와 굴비 상인, 어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굴비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결의대회’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은 “법성포수협 위판 기준으로 2018년 kg당 3만 2000원이었던 참조기 위판 단가가 지난해에는 5만 5000원으로 두 배 가량 상승했다”라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참조기 어획량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근해유망수협 명영재 조합장도 “앞으로 참조기 조업과 어획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류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해 방류한 참조기와 부세를 대상으로 ‘유전자 건강도 분석(PIC), 유전자 계군 분석법(PAG)’을 이용한 방류 열성화 방지 및 회귀율, 생존율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고수는 대응 품종으로 이제 본격 산업화에 진입한 참조기·부세 양식 연구와 종자 분량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민들이 선호하는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굴비의 원재료가 되는 참조기 127만 마리, 부세 50만 마리를 방류해 왔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